

이혼가정아동의 우울: 가족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f Depression in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Family Structures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 사 지 선 례
교 수 이 속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 : Seon Rye Ji

Professor : Sook Le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particularly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s. A questionnaire was given to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grades 3-6). 310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were survey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epression scores by family structure among these children. Second, the variables that affected depression among the divorced family children were relatively different. Third, through this comparison,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ve influence of variables that affected children's depression. This study proposes interventions to improve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mechanisms.

주제어(Key Words) : 이혼가정아동(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우울(depression)

I. 서론

1980년의 이혼건수(23,662건)와 조이혼율(0.6)을 2009년의 이혼건수(124,000건)와 조이혼율(2.5)과 비교해볼 때 이혼건수는 5.2배, 조이혼율은 4.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09년 한 해 동안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두고 이혼한 부모가 55.2%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가정이 25.4%, 2명인 가정이 25.7%, 3명이상인 가정이 4.1%로 나타나 2009년 약 11만 1천 3백 명의 아동들이 새롭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으며(Statistics Korea, 2010) 2000년 이후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수는 138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은 당사자인 부부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동은 가족기능의 약화와 스트레스를 감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와 학교부적응 등 다양한 적응문제를 겪을 수 있다(Amato, 2004;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Ju, 2004; Kelly, 2000; M-S. Kim, 2004).

우울은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정서장애 중 가장 심각한 특성이며 연속적인 장애로서 인지적 손상이 생애 초기에 이루어져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 및 좌절감, 피로감을 야기하고 비행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행동, 가족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유발하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성인기의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선행연구들(Hetherington, 1993; Jun, 2003; Videon, 2004; Wallerstein, Lewis, & Blakeslee, 2000)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혼가정아동은 부모의 이혼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과 절망감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한 비난, 죄책감과 무가치하다는 생각 등을 갖게 되어 우울 등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 때문에 아동기 발달과업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학령기 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인지적 성숙은 이루어진 반면 대처기술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거절과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상, 불안과 외로움, 흥미상실, 공포를 느껴 우울수준이 높다(Amato, 2004; Hetherington, 1993; Shin, 2006; Won, 2005). 그러나 Amato(1993, 2004)는 이혼가정의 자녀 중에서도 심리적 적응, 학업성적,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자녀들이 존재하며 부모의 이혼 여부만으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아동들은 대부분 변화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와 기간은 아동마다 다르며 아동이 가지고 있는 보호요소의 다양성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Sun & Li, 2004). 따라서 연구자들

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혼가정아동의 적응연구에서 이혼자체로 인한 차이를 밝히는 것보다는 이혼가정아동간의 적응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후 이혼가정아동을 돕는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Emery, 1982, quoted in Twaite, Silitsky, & Luchow, 1998).

한 가정 내에서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의 역할과 자원, 어려움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주 양육자는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중과 경제적 곤란, 가족내·외에서 상호작용의 변화 등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다(Jung, 2006; Suh, 2010; Won, 2005). 이혼모자가족은 이혼부자가족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모는 직업을 가지게 되고 가정경제를 관리해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고 부의 부재로 인해 권위와 감독권 및 통제력이 상실되기 쉽다. 반면, 이혼부자가족은 익숙하지 않는 가정일이나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서생활의 근원이 되는 모의 부재로 인해 자녀들의 성격 및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Jung, 2007). 이혼조손가족은 가족해체의 부산물로서 형성되며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혼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손자녀의 양육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손자녀들은 가정적, 사회적 환경 모두 불리한 위치에 있어 이혼조손가족은 아동문제와 노인문제가 복합된 다양한 가족문제를 내포한 가정으로서 가족기능이 취약하다(H-S. Kim, 2004; Minkler & Roe, 1996). 이처럼 이혼 후 주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아동의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적응에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혼가정아동의 우울이 어떠한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들은, 이혼가정아동들이 분리, 상실, 가족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지지하거나 저해하는 아동요인, 양육자요인, 환경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Garmezy, 1991; Hetherington, 1993;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아동요인, 부모요인, 환경요인 중 하나의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세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는 극소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요인, 양육자요인, 환경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에 속하는 변인들을 선정하여 각 요인의 영향과 개별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고찰에 기초하여 아동요인에서 이혼지각, 자기조절능력, 양육자요인에서 양육자 양육태도, 부모 간 갈등, 환경요인에서 사회적 지지, 경제적 수준을 개별변인으로 선정하

였다.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가정아동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혼가정아동들의 우울 등 심리적 부적응이 증가함으로 이를 미리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혼가족유형별로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혼가정아동의 적응에 관해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반가정과 이혼가정의 적응을 비교하는 연구(Ji, 2002; Kim, 2009; Park, 2004)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혼가족유형에 관계없이 이혼가정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는 하였으나(Han, 2008; Ju, 2004; Oh, 1997) 다양한 이혼가족유형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적응 및 그에 관련된 변인 등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양육자, 환경변인의 영향력을 이혼가족유형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아동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심리적 적응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는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즉 가족의 지지는 이혼가정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이었고(Kim, 2006) 친구의 지지는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Han, 1996; Schwartz, Dodge, Pettit, & Bates, 2000)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여 아동의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고 심리적인 적응수준에 영향을 준다(Ju, 2004; Wentzel & McNamara, 1999). 그리고 교사는 아동에게 적절한 가치관, 태도 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Oh, 1997; Yoon, 1993). S-K. Kim(2004)은 교사는 가정의 불안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혼가정아동에게 부모에게 받을 수 없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행동문제를 감소시킨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Han(2008)의 연구에서 교사지지는 이혼가정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Ju(200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정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할 때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혼가정아동들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Han, 1996; Teja & Stolberg, 1993)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이혼 후 소득의 감소는 이혼가정의 양육부모와 아동에게 경제적 압력을 주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양육부모는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아동들은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아동의 정서발달 및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mato, 2004; Jung, 2006; Lengua, Wolchik, & Braver, 1995; Park, Choi, & Han, 2009).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수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과 달리 경제적 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 등(Ju, 2004; Suh, 2010)도 있어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양육자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이혼의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mato, 2004; Lee & Ji, 2010). Wolchik, Wilcox, Tein과 Sandler(2000)의 8-1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용적이고 일관성 있는 훈육을 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부정적인 이혼의 영향을 중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Amato(2004)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혼가정아동의 문제행동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정서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들고 있다. 즉 이혼가정아동도 양육부모가 애정적이고 민감한 양육태도를 유지하면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Amato, 2004; Lee & Ji, 2010). 그러나 Han(2008)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혼가정아동의 불안, 우울 등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 이혼가정자녀가 받을 수 있는 정서적 결핍이나 좌절감을 고려하여 애정적 양육태도를 선정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자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부모 간 심각하고 폭력적인 갈등은 아동의 적응문제를 일으킨다(Stolberg, Camplair, Currier, & Wells, 1987). Park(1996)은 아동자신과 관련된 부모간 갈등, 빈번하고 격렬하고 미해결된 갈등을 보고한 아동은 더 많은 문제행동과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Amato(1993)는 이혼가정아동의 적응에 부모 간 갈등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부모 간 갈등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신체적 공격성은 아동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대인간 갈등해결의 방법으로 싸움이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학습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은 친구관계나 학교에서 이를 표출함으로써 적응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아동의 이혼지각은 이혼 이후 아동자신, 부모, 환경에 대한 지각과 관계에 영향을 준다(Ju, 2004). 이혼가정아동들은 자신이 나쁜 행동을 했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부모가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며 이러한 자기비난은 성장을 저해하고 자신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아동의 부적응을 심화시킨다고 하였다(Kim, 2006; Wallerstein, 1983). Smilansky(2002)는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혼의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이혼에 대한 정보를 감추어 아동의 지각적 왜곡을 초래하여 아동들이 한쪽 부모가 가정을 떠나면 자녀는 떠난 부모와 접촉을

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점차 함께 살고 있는 부모조차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행동 때문에 부모가 언쟁하는 것을 듣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이혼의 원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 아동의 불안과 우울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Shin(2006)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적응에 직접효과가 크게 나타나 아동의 자기비난이나 유기불안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적응이 어렵고 정상적인 발달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Kurdek과 Siesky(1980)는 이혼을 자녀의 불행이라고 보는 관점은 이혼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간과했다면서, 이혼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고려한 몇 연구들은 이혼이 불행으로 여겨지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quoted in Twaite et al., 1998). 따라서 아동이 부모이혼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부모이혼 후 아동들의 적응을 촉진하기도 하고 부적응이 심화되기도 하므로(Wolchik, Sandler, & Doyler, 2002) 아동의 이혼지각에 따른 적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연구는 문제행동에 관련되어 이루어졌는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불안, 우울 등의 내면화 문제와 공격성 등의 외면화 문제 모두를 감소시키고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Ha & Kim, 2003; Kim, 2001). Shin(2008)은 자기조절능력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을 돕는 능력으로 위기적 환경 속에서도 문제행동을 덜 보이며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하도록 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의 구조적 결손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력의 미숙,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등으로 낮은 학업성취의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서는 비행행동과도 관련성을 보인다. 이러한 성향은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Kim & Kim, 1999; Nam & Ok, 2001). 위의 연구들처럼 자기조절능력이 일반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이혼가정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부모 이혼이라는 스트레스를 받은 이혼가정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에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근거로 하여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혼가족유형에 따라 아동의 이혼관련변인(비양육부모 만남여부, 이혼 후 전학, 이혼에 관련된 설명유무), 아동의 우울은 차이가 있는가?
2. 이혼가족유형별로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북, 전남, 광주광역시 52개 지역아동센터(전북: 21개소, 전남: 17개소, 광주: 14개소)에 다니는 초등학교 3-6학년이 재학 중인 이혼가정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362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 가족유형이 기재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310명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 시 연령보다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부모이혼이 아동으로 하여금 '얼마나 어렵게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이 표출되는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을 가족유형별로 보면 이혼모자가족 아동이 145명(46.8%), 이혼부자가족 아동이 112명(36.1%), 이혼조손가족 아동이 53명(17.1%)이었고 성별은 남 129명(41.6%), 여 181명(58.4%)이었다.

Table 1.
Sex among the children by family structure

	sex		Total score
	boy	girl	
single mother families	50 (38.8%)	95 (52.5%)	145 (46.8%)
single father families	53 (41.1%)	59 (32.6%)	112 (36.1%)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26 (20.2%)	27 (14.9%)	53 (17.1%)
Total score	129 (41.6%)	181 (58.4%)	310 (100.0%)

2. 측정도구

1) 우울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1981)가 개발하고 Han(1993)이 번안 사용한 아동용 우울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검사도구는 우울정서(우울한 기분, 외로움, 5문항), 행동장애(공격적 행동, 대인장애, 4문항), 흥미상실(일상에서의 흥미나 즐거움 상실, 5문항), 자기비하(무가치감이나 부정적인 자아상, 4문항)의 4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3점 리커트 척도로서, 부정적인 진술 문항은 역산으로 처리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기분이 들며 흥미를 상실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등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교사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정, 정보, 도움, 물질적 원조 등의 긍정적 자원

에 대한 아동의 평가로 정의한다.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Han(1996), Ju(2004)가 사용한 척도들을 기초로 하여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아니오'에서 '예'의 2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하위변인을 합산하였고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이었다.

3) 경제수준

아동의 경제수준은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을 의미하며 상(잘 산다), 중(보통이다), 하(못 산다)로 분류하였다.

4) 부모간 갈등

부모간 갈등은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기 전 생활하면서 갈등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부모간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Grych(1992)가 개발한 부모간 갈등척도를 Kwon과 Lee(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 전 부모간의 갈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5) 양육자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과 Lee(1990)의 양육행동 검사도구중 애정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애정 하위척도는 자녀에 대해 양육자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아동 요구에 민감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아동이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보다 애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6) 이혼지각

아동의 이혼지각은 Kurdek과 Berg(1987)가 제작한 아동의 부모이혼지각척도를 번안하여 Ju(2004)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혼지각은 유기불안, 아동의 자기비난으로 이루어졌으며,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2점 척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유기불안이 높고 자기비난이 높아 이혼지각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7) 자기조절능력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Gottfredson과 Hirschi(1990), Kim(1998)의 척도를 참고로 Nam(1999)이 재구성한 척도 중에서 장기적인 만족을 위한 만족지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의 생각 등을 나타내는 5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69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는데 먼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등을 구하였다. 또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χ^2 검정,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Difference of divorced variables among the children by family structure

		family structure			Total score	χ^2
		single mother families	single father families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meeting of noncustodial parent	meeting	26(28.3%)	26(29.9%)	9(31.0%)	61(29.3%)	.14
	telephone e-mail	11(12.0%)	10(11.5%)	3(10.3%)	24(11.5%)	
	meeting no	55(59.8%)	51(58.6%)	17(58.6%)	123(59.1%)	
Total score		92(44.2%)	87(41.8%)	29(13.9%)	208(100%)	
transfer of school	transfer no	81(76.4%)	73(74.5%)	29(82.9%)	183(76.6%)	1.01
	transfer	25(23.6%)	25(25.5%)	6(17.1%)	56(23.4%)	
	Total score	106(44.4%)	98(41.0%)	35(14.6%)	239(100%)	
explanation for divorce	explanation no	58(63.0%)	56(65.1%)	24(80.0%)	138(66.3%)	3.01
	explanation	34(37.0%)	30(34.9%)	6(20.0%)	70(33.7%)	
	Total score	92(44.2%)	86(41.3%)	30(14.4%)	208(100%)	

Table 3.
Difference of depression among the children by family structure

	N	M	SD	F
single mother families	145	29.83	7.32	.59
single father families	112	29.77	7.18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53	31.04	8.82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이혼가족유형에 따른 이혼관련변인, 우울의 차이

이혼가정아동의 비양육부모 만남여부, 이혼 후 전학, 이혼에 관련된 설명유무는 이혼가족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혼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이혼가정아동의 우울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이혼가정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이혼가족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이혼가족유형별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모자가족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r = -.43, p < .001$), 주관적으로 가정의 경제수

준을 높게 지각할수록($r = -.27, p < .0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r = -.45, p < .001$), 부모 간 갈등이 낮을수록($r = .38, p < .001$),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r = -.36, p < .001$), 이혼지각이 낮을수록($r = .39, p < .001$) 아동의 우울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부자가족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r = -.33, p < .001$),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r = -.19, p < .05$),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r = -.51, p < .001$), 부모 간 갈등이 낮을수록($r = .32, p < .01$),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r = -.35, p < .001$), 이혼지각이 낮을수록($r = .30, p < .01$) 아동의 우울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조손가족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r = -.51, p < .001$), 조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r = -.68, p < .001$), 부모간 갈등이 낮을수록($r = .55, p < .001$),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r = -.40, p$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of children of single mother families

	1	2	3	4	5	6	7
1. social support	1						
2. economical level	.15	1					
3. parenting behaviors	.45***	.19*	1				
4. interparental conflict	-.19*	-.24**	-.29***	1			
5. divorced perception	-.03	-.04	-.10	.11	1		
6. self control	.26**	.19*	.41***	-.10	-.14	1	
7. depression	-.43***	-.27**	-.45***	.38***	.39***	-.36***	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Correlation among variables of children of single father families

	1	2	3	4	5	6	7
1. social support	1						
2. economical level	.07	1					
3. parenting behaviors	.44***	.06	1				
4. interparental conflict	-.21*	-.10	-.35***	1			
5. divorced perception	-.21*	.02	-.26**	.22*	1		
6. self control	.19*	.23*	.20*	-.09	-.18	1	
7. depression	-.33***	-.19*	-.51***	.32**	.30**	-.35***	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Correlation among variables of children of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1	2	3	4	5	6	7
1. social support	1						
2. economical level	.21	1					
3. parenting behaviors	.65***	.27	1				
4. interparental conflict	-.32*	-.26	-.55***	1			
5. divorced perception	-.41**	-.21	-.62***	.76***	1		
6. self control	.32*	.25	.48***	-.27	-.18	1	
7. depression	-.51***	-.23	-.68***	.55***	.65***	-.40**	1

* $p < .05$ ** $p < .01$ *** $p < .001$

<.01), 이혼지각이 낮을수록($r = .65, p < .001$) 아동의 우울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에서 선정한 환경변인 중에서 사회적 지지, 주관적 경제수준, 양육자변인에서는 양육자 양육태도, 부모간 갈등, 아동변인 중에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아동의 이혼지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변인들을 아동의 우울에 영향력 있는 변인들을 탐색해보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고 성별과 학년은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이혼관련변인은 결측치가 많아 회귀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Gunst와 Mason(1980)에 의하면 상관계수가 .7-.8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quoted in Nam, 2009)는 것을 고려하여 이혼조손가족의 이혼지각과 부모갈등간의 상관관계(.76, $p < .001$)가 매우 높아 가족유형별 회귀분석에서는 부모간 갈등을 제외시켰다.

2) 이혼가정아동의 우울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이혼가정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Durbin-Watson(DW)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잔차간 자기 상관 유무를 검토하였고 회귀모델에 대한 회귀잔단(F 검증)을 실시하였다. VIF계수는 1.1-1.6범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W계수도 1.55-2.12로 2에 가까워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인구학적변인, 환경변인, 양육자변인, 아동변인을 각각 하나의 독립군으로 묶어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 군들을 순서대로 투입하여 각 변인군의 설명력 변화와 개별변인들의 영향력 변화를 살펴봄

으로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회귀모델에서 변인 군 투입순서는 선행연구(Amato, 2004; Ju, 2004; Lengua et al., 1995)에 근거하여 변인군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였다. 먼저 환경변인을 투입한 이유는 이혼가정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아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이혼은 부모, 형제, 친구, 교사들과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켜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회적 지지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양육하는 부모는 가사, 경제적 활동, 자녀양육으로 인한 역할과중으로 보호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이 애정적이고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면 아동의 이혼지각 즉 유기불안, 자기비난이 낮아지고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변인을 제일 마지막에 투입하였다.

(1) 이혼모자가족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이혼모자가족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Tabl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혼지각($\beta = .37, p < .001$), 모양태도($\beta = -.25, p < .01$), 사회적 지지($\beta = -.18, p < .05$), 자기조절능력($\beta = -.18, p < .05$), 경제적 수준($\beta = -.17, p < .05$)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47%였다($F = 12.83, p < .001$). 따라서 이혼모자가족 아동의 경우 이혼지각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혼모자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변인군의 영향력은 환경변인군($\Delta R^2 = .19$)과 아동변인군($\Delta R^2 = .17$), 양육자변인군($\Delta R^2 = .10$)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2) 이혼부자가족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이혼부자가족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은 Table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양육태도($\beta = -.40, p < .001$), 자기조절능력($\beta = -.20, p < .05$)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35%였다($F = 6.85, p < .001$). 따라서 이혼부자가족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혼부자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변인군의 영향력은 양육자변인군($\Delta R^2 = .15$)과 아동변인군($\Delta R^2 = .07$)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3) 이혼조손가족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이혼조손가족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Table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부모 양육태도($\beta = -.65, p < .01$), 이혼지각($\beta = .31, p < .05$)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71%였다($F = 10.00, p < .001$). 따라서 이혼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이혼지각이 낮을수록 아동의 우울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혼조손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변인군의 영향력은 양육자변인군($\Delta R^2 = .24$)과 아동변인군($\Delta R^2 = .10$)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혼가정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각 변인들의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가정아동의 비양육부모 만남여부, 부모이혼 후 전학, 이혼에 관련된 설명유무는 가족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동의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여부를 살펴보면 약 70%의 아동이 만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아동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비양육부모와 만나지 못함으로 비양육부모의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전학한 아동이 약 36%로 많은 아동이 환경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Ju(2004), Lengua 외(1995), Amato(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데, Amato(2004)는 양육부모는 이혼 후 가난한 지역으로 이사하기 때문에 이사와 전학은 아동에게 파괴적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볼 때, 이혼으로 인해 이미 상처를 받은 아동들이 환경변화를 겪게 되면 이전의 친밀한 사람, 익숙한 환경과 분리되고 자원이 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하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Lee & Ji, 2010). 또한 이혼의 원인이나 이후의 변화 등에 설명을 듣지 못한 아동이 63%로 대부분의 아동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부모의 이혼을

맞아 이혼 이후의 상황에 관해 불안하였을 것이다(Smilansky, 2002).

둘째, 우울은 이혼가족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심리적 적응에서 이혼모자가족의 자녀들이 우울이 더 낮고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연구결과나(Kim & Son, 2005; Oh, 2001),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하고 이혼부자가족은 애정표현이 부족하고 자녀의 보호, 감독에 소홀하여 이혼부자가족 아동의 비행행동이 높다는 Jung(200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모자가족은 이혼부자가족보다 자녀에게 더욱 많은 자원과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거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고, 이혼부자가족은 대인관계 자원, 양육행동이 부족하나 동거인 등 특히 조부모의 양육과 가사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혼모자가족과 이혼부자가족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Downey, Ainsworth-Darnell, & Dufer, 1998; McLanahan & Sandefur, 1994; Won, 2005)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이혼조손가족은 원가족 내의 여러 문제로 부모와 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조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완충장치로 작용하여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Brown, 2003; Solomon & Marx, 1995)에서 이혼조손가족 아동의 적응이 이혼모자가족, 이혼부자가족과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이혼가족유형에 따른 차이, 즉 주양육자가 누구이냐 보다는 아동의 환경요인, 양육자요인, 아동요인 등의 질적인 요소가 이혼가정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셋째, 이혼가정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혼가족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이혼모자가족 아동의 우울에는 이혼지각, 어머니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조절능력, 주관적 경제수준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이혼부자가족 아동의 경우에는 아버지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혼조손가족 아동의 경우는 조부모 양육태도, 이혼지각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모자가족 아동의 우울은 아동의 이혼지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가 떠난 것을 자신에 대한 거절로 느낀 아동이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일, 직장일로 힘든 어머니를 보면서 유기불안이 높아져 우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Ju, 2004)에서 이유를 설명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이혼과정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왜곡된 지각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우울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후에도 양육부모가 애정적이고 민감한 양육태도를 유지하면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또래나 사회관계에서 유

능성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이혼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Amato, 2004; Lee & Ji, 2010). 따라서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이혼모자가족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모자가족아동의 우울을 경감시키는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이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이혼 후 겪는 경제적 곤란은 아동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모의 심리적인 불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Amato, 2004)는 점에서 낮은 경제적 수준이 우울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혼부자가족의 경우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민감한 양육태도를 유지하면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우울과 같은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Amato, 2004; Lee & Ji, 2010). 그러나 부는 자녀의 돌봄과 양육, 자녀교육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여 감정표현과 애정표현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부나 자녀 모두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부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Jang & Hwang, 2009; Jung, 2006),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아동발달, 아동양육방법,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등에 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자기조절능력이 이혼부자가족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은 충동적이고 공격

적인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서는 문제행동과도 관련성을 보인다(Kim & Kim, 1999; Nam & Ok, 2001)는 점에서 이혼부자가족 아동의 낮은 자기조절능력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일 수 있다.

이혼조손가족 아동의 경우 조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우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는 신체적, 심리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노년기를 보내고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이 지나치게 되면 조부모에게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조부모의 심리·정서적 안녕을 위협하여 불안정하고 우울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H-S. Kim, 2004). 따라서 조부모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는 조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는 손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아동의 우울수준을 높일 수 있어 이혼조손가족 아동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혼지각이 이혼조손가족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이혼조손가족 아동은 부모이혼 후 할머니와 살게 됨으로 부모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이 심하다는 연구(H-S. Kim, 2004)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혼조손가족 아동에게 부모의 이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또한 이혼에 대한 왜곡된 지각은 시간이 나 아동의 연령과 더불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Smilansky, 2002) 이혼 직후 아동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입의 방법으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했을 때 이혼모자가족은 환경, 양육자, 아동변인이 모두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혼부자가족과 이혼조손가족은 양육자변인, 즉 양육자의 양육태도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 후 모

Table 7. The effects of variables on the depression of children of single mother families

variables	variables	depression(single mother famili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	β	B	β	B	β	B	β
demographic	sex	-.51	-.03	.36	.02	1.11	.07	.97	.06
	grade	-.47	-.08	-.20	-.03	-.41	-.07	-.47	-.08
environmental	social support			-.61	-.33**	-.33	-.18	-.33	-.18*
	economical level			-2.71	-.25**	-2.23	-.21*	-1.85	-.17*
parental	parenting behaviors					-.54	-.36***	-.37	-.25**
child	divorced perception							1.48	.37***
	self control							-.34	-.18*
	F	.36		6.54***		8.85***		12.83***	
	R ²	.01		.20		.30		.47	
	ΔR ²	.01		.19		.10		.17	
	D.W	2.12							

Note. sex 0: boy 1: girl
*p < .05. **p < .01 ***p < .001

Table 8.
The effects of variables on the depression of children of single father families

variables	variables	depression(single father famili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	β	B	β	B	β	B	β
demographic	sex	-1.49	-.10	-.64	-.04	.48	.03	.70	.05
	grade	-.21	-.04	-.16	-.03	-.40	-.07	-.43	-.07
environmental	social support economical level			-.52	-.31**	-.17	-.10	-.07	-.04
				-1.81	-.15	-2.06	-.17	-1.61	-.14
parental	parenting behaviors					-.56	-.45***	-.49	-.40***
child	divorced perception self control							.68	.17
								-.35	-.20*
	F	.56		3.47*		7.07***		6.85***	
	R ²	.01		.13		.28		.35	
	ΔR ²	.01		.12		.15		.07	
	D.W	1.70							

Note. sex 0: boy 1: girl
*p < .05. **p < .01 ***p < .001

Table 9.
The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on the depression of children of divorced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variables	variables	depression(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	β	B	β	B	β	B	β
demographic	sex	-3.31	-.19	-.69	-.04	1.49	.09	2.39	.14
	grade	-.71	-.09	-.67	-.08	-.42	-.05	.24	.03
environmental	social support economical level			-.95	-.52**	-.12	-.07	-.04	-.02
				-4.09	-.29	-2.82	-.20	-2.48	-.17
parental	parenting behaviors					-.77	-.69***	-.72	-.65**
child	divorced perception self control							1.18	.31*
								.50	.19
	F	.73		4.70**		9.60***		10.00***	
	R ²	.04		.37		.61		.71	
	ΔR ²	.04		.33		.24		.10	
	D.W	1.55							

Note. sex 0: boy 1: girl
*p < .05. **p < .01 ***p < .001

자가정은 아동에 대한 주양육자가 바뀌지 않고 어머니에 의한 보호와 정서적 지지 등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도 환경, 양육자, 아동변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이혼부자가족과 이혼조손가족은 이혼 이후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고 돌보는데 경험이 부족한 아버지나 조부모의 양육으로 양육자의 바뀜과 양육방법의 변화에 따른 혼란과 갈등, 스트레스로 인해 양육자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넷째, 가족유형별로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이혼가정에 대한 획일적인

서비스보다는 가족유형에 따라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심리적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이혼가족유형에 따라 구성하여 부적응 양상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만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민감한 부분인 이혼관련변인에 대한 무응답이 많아 이혼관련변인은 회귀분석에서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경제적 수준은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와 아동이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 부모의 평가를 기준으로 연구하면 아동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간의 중재효과를 분석하지 못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혼의 영향을 증재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혼가정아동들의 적응을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혼가정의 증가로 인한 이혼가정아동의 다양한 적응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으로 논의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가정아동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혼가정아동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및 대처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 해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mato, P. R. (1993). Child'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23-38.
- Amato, P. R. (2004).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69-1287.
- Brown, L. B. (2003).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n in-depth phenomenological study*. Diss. New Mexico State University.
- Downey, D. B., Ainsworth-Darnell, J. W., & Dufer, M. J. (1998). Sex of parent and children's well-being in single-parent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4), 878-893.
- Garnezy, N. (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olescent development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 & Scientist, 34*, 416-430.
- Ha, Y-H., & Kim, K-Y. (2003).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moral proscriptive behavior and individual and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7*(1), 17-30.
- Han, J-A. (2008).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divorced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Han, M-H. (1996). A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Han, Y-J. (1993). Children's and adolescent's depression, attributional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Hetherington, E. M. (1993). An overview of the 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with a focus o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1-18.
- Hetherington, E. M., & Stanley-Hagan, M. (1999).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40*(1), 129-140.
- Jang, D-H., & Hwang, D-S. (2009). The effects of family protective factor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of divorced family: Focu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male-headed family and female-headed fami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Studies, 15*(4), 413-431.
- Ji, E-S. (2002). A comparative study of health state and school adaptation between divorced family's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Ju, S-H. (2004). Study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child's adaptation after divorce: In child's point of view.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Jun, S-J. (2003). Impact on the psycho-social adaptation of the adolescence in divorced family by the relationship with rearing or non-rearing parents and the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J-Y. (2007). Influence of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by the family function and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of single father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S-H. (2006). Family structure,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adolescent delinquency: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single

- mother family and single father fami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Studies*, 30, 185-213.
- Kelly, J. B. (2000). Children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8), 963-973.
- Kim, E-J. (2007). The effect of parental divorce on children's self-esteem; based on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economical deficiency and parenting. *Family and Culture*, 19(3), 79-103.
- Kim, H-J. (2001). The effects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S. (200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emotion and behavior in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H. (2006). A study on the impact of family-related elements on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 Kim, M-K. (2009). A study of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Kim, M-S. (2004). Character and counseling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9, 1-14.
- Kim, S-H., & Kim K-Y. (1999). The causal relationship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the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7(1), 155-166.
- Kim, S-K. (2004). The path analysis among risk-protective factors on the resilience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H., & Son, J-Y. (2005). The effects of economic condition and the parenting o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divorced families: A comparison of custodial fathers and mothers. *Korean Journal Community Living Science*, 16(3), 47-55.
- Kwon, Y-O., & Lee, J-D. (1997). A validation study o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8(1), 65-80.
- Lee, S., & Ji, S-R. (2010). The effects of personal and family variable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15), 119-128.
- Lengua, L. J., Wolchik, S. A., & Braver, S. L. (1995). Understanding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2(3/4), 25-54.
- McLanahan, S., & Sandefur, G.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s: What hurts, what help?*.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inkler, M., & Roe. K. M. (1996). Intergenerational households headed by grandparents: context, realities, implications for policy. *Journal of Aging Studies*, 13, 199-218.
- Nam, H-M. (1999).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Nam, H-M., & Ok, S-H. (2001).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2(1), 129-139.
- Nam, Y-J. (2009). A comparative study the self-concept and depress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e and gene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Korea.
- Oh, E-S. (1997). A structure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Oh, S-H. (2001). A study on determinants of

- adolescent's adaptation in low income broken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K-J., Choi, H-Y., & Han, J-A. (2009).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6), 323-336.
- Park, S-J. (1996). The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Y., & Lee, S. (1990).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8(1), 141-156.
- Park, Y-S. (2004). A study on the factor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2000). Friendship as a modeling factor in the pathway between early harsh home environment and later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6, 646-662.
- Shin, J-H. (2008).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self-control and the environment variables about the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S-H. (2006). A structural model for children's adaptation in divorced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Smilansky, S. (2002).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E-S. Oh,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 Solomon, J. C., & Marx, J. (1995). To Grandmother's house we go: Health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The Gerontologist*, 35(3), 386-394.
- Statistics Korea. (2010). *Statistics of divorced, 2010*. Seoul: Statistics Korea.
- Stolberg, A. L., Camplair, C., Currier, K., & Wells, M. J. (1987). Individu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11(1), 51-70.
- Suh, S-M. (2010). The effects of the social support and grandmother's parenting stress in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on grandchildren's depression and aggress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Sun, Y-M., & Li, Y-Z. (2004). Children's well-being during parent's marital disruption process: A pooled time series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472-488.
- Teja, S., & Stolberg, A. L. (1993). Peer support,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0, 45-64.
- Twaite, J. A., Silitsky, D., & Luchow, A. K. (1998). *Children of divorce: Adjustment, parental conflict, custody, remarriage, and recommendations for clinicians*. London: Jason Aronson.
- Videon, T. M. (2004). The effects of parents-adolescent relationships and parental separation on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489-503.
- Wallerstein, J. S. (1983). *Children of divorce : Stress and developmental tasks*. N.Y.: McGraw- Hill.
- Wallerstein, J. S., Lewis, J., & Blakeslee, S. (2000).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A twenty-five year landmark study*. New York: Hyperion.
- Wentzel, K. R., & McNamara, C. C. (1999).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motional distress, and prosocial behavior in middle scho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7(2), 129-151.
- Wolchik, S. A., Sandler, I. N., & Doyler. (2002). Fear abandonment as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divorce stressors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ren's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4), 401-419.
- Wolchik, S. A., Wilcox, K. L., Tein, J. Y., & Sandler, I. N. (2000). Maternal acceptance and consistency of discipline as buffers of divorce stressors on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1), 87-102.
- Won, H-S. (2005). A study of the school adapt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gender of the custodial parents in divorced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Yoon, H-J. (1993). Perception of everyday stress and social network support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접 수 일 : 2011년 11월 4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월 13일